

여권 잠룡들 대권가도 날개...야권은 대권주자 전멸 위기

4·15 총선 결과에 따라 각 대선주자의 정치적 입지도 요동치고 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의 몸값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대권주자들은 크고작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11시 현재 개표상황을 종합하면 종로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극단대책위원장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의 승리를 교두보로 향후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중순 국무총리 임기를 마친 뒤 여의도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함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종로 승리 이낙연 입지 상승

패배 황교안은 정치인생 기로

이재명·박원순·임종석·유승민

코로나 대응 등 주자군 자리매김

으로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그간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총선 과정에서 20명이 넘는 민주당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전국 지원 유세로 후보들을 지원 사격해 당내 세력화의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이날 밤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로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든가 관측이 나온다.

종로 출마 승부수를 던졌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열세를 뒤집지 못한 데다 전체 선거 결과를 책임지는 총괄선대위원장이자 당 대표로서 가장 큰 책임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총선 이후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잠룡인 김부겸 의원은 '협지' 대구 수성갑에서 두 번째 당선에 도전했으나, 이날 오후 11시 현재 맞수인

통합당 주호영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지역주의 타파'를 화두로 내세웠던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권 도전 의사가 밝혔으나 총선 패배 시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선을 지낸 '민주당 텃밭' 서울 광진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 후보는 중도·보수개혁 지분으로 보수진영 내 유력 대권주자로도 발돋움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강원도와 경남 지역 선거를 각각 이끈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각각 강원 원주갑과 경남 양산을에서 출구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이 최종 개표 결과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지역 맹주로서 대권 잠룡으로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공천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전 경남지사 역시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를 달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직접 총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슈 등으로 지지도가 일제히 오르면서 유력한 대선주자군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총선

에 불출마했지만 선거운동 국면에서 전국을 다니며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총선 승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재력 높은 여권의 대선주자로 계속 거론되면서 향후 당내에서 정치적 공간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원사격에 나섰다. 당내 유승민계 의원들이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한다면 보수진영 내 개혁보수 브랜드를 가진 유 의원은 대권잠룡으로서 정치적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당대표직 사퇴를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호남, 통합당 영남 압승...지역주의 벽 더 견고해졌다

민주당, 대구 교두보 축소

통합당은 호남 2석 상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영남에서 압승하면서 지역주의 벽이 여전히 확고해졌다. 특히 여야가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상대 텃밭에 구축한 교두보마저 이번 선거를 통해 사라지면서 지역주의가 더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5일 오후 11시 현재 개표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호남 총 28개 지역구가운데 27개를 가져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밀려 호남 28석 중 23석을 내주고 3석을 지키는 데 그쳤으나 이번 총선을 통해 전통적 지지기반을 완전히 회복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가져간 호남 2석도 도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광주 전체 8개 지역구, 전남 전체 10개 지역구에서 후보 전원이 당선됐거나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다. 10석이 걸린 전북에서도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1위인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9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당선이 확실하다.

반면, 영남에서는 통합당이 압승하는 부

위기다.

대구 지역의 경우 12개 지역구 중 11개에서 통합당 후보 당선이 확실하거나 유력하다. 경합 중인 대구 수성을은 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통합당에서 탈당한 홍준표 후보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누가 이기든 보수 진영의 승리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당선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했다는 평가를 받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북구을의 현역 의원인 홍의락 후보의 패배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의 대구 2석이 사라지게 됐다.

경북 13개 중 8개에서 통합당 후보가 당선됐으며, 나머지 5개도 당선이 확실하거나 유력한 상황이다. 경남의 경우 16개

중 12개에서 통합당 후보 당선이 확실하거나 유력하다. 김해갑, 김해을, 양산을 3곳만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산청함양거창합천은 통합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1위다.

부산은 18개 중 16개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5석을 가져간 민주당은 남구을과 사하갑 2개에서만 앞서고 있어 이곳의 교두보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도 통합당이 6개 지역구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라 여야가 세계 불운하면서 영·호남 지역주의가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21대 국회의장 민주 '최다선' 박병석 유력

김진표 등 '5선' 중진들도 후보군

4·15 총선에서 생환이 유력한 여야 중진들의 국회 의장단 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입법부 수장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이 맡게 된다. 임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년씩 맡는다. 국회의장은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직의원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추천을 받아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 선출된다.

15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개표 결과 민주당의 1당이 확실시됨에 따라 21대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우선 총선 승리 시 당내 '최다

선' (6선)이 되는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지역구에서 40% 가량 개표가 진행된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장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입지가 탄탄한 박 의원은 당내 중도 온건파 인사로 분류된다.

현재 민주당 최다선으로 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7선)은 총선에 불출마했고, 정세균 의원(6선)은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뒤 국무총리직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 승리 시 5선이 되는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부)도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과 같은 선수인 변재일·조정식·שלחן-송영길·안민석 의원 등도 의장직 도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